



광명시 의회소식

열린의회

공부하는의회

생산성있는의회

제 24 호 2005. 10. 15

2005년 7월~2005년 9월

발행 광명시의회/발행인 문해석/편집인 최남석·박영현·김선식/정리 오세진/광명시시청로 20/TEL 2616-6948/FAX 2680-2637



검토
고속철도 영등포역 정차 등의 계획을 전면백지화하고
광명역을 출발역(시발역)으로 조속히 환원하라!

Contents

2 지금은 회기중 / 4 위원회에서는 / 8 의정현장증계 / 19 의정단신 / 22 의정활동 이모저모



지금은 회기중.....



제120회 정례회

광명시의회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회 했다.

이번 정례회는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시정질문,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심사, 7월 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후 7월 20일 폐회했다.

조례안중에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전철사업과 관련된 기구설치로 인력증원이 불가피 해짐에 따라 일부 기구개편내용을 담고 있어 의회가 폐회된 후에는 승진·전보 등 대규모 인사가 있어 직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광명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법 개정에 대하여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중선거구제·비례대표제 등을 허용하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 시키려는 행위이며, 정당정치의 역기능이 지방에 확산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을 많은 시민

들은 우려하고 있으므로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대 한다”는 결의문을 7월 20일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례회에 앞서 문해석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집행부측의 시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게 되는 만큼 모든 의원이 비상한 각오로 감사에 임해주기 바라며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정시켜 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의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도 14건이나 되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는 관련법과의 관계, 시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불편 등을 주의 깊게 살펴줄 것과 2004회계년도 결산및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도 세밀히 심사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석)는 지난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7월 1일부터 7월 20일 까지 20일간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문해석 의장

제121회 임시회

광명시의회는 8월 29일부터 제121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와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부진한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하기위해 9월 5일 까지 8일간 일정으로 개최 됐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을 비롯하여 “현재 수질검사는 수도과(가정수도전, 노후관, 급수관정, 약수터), 재난관리과(지하수), 민방위관련부서(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수질검사 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고, 검사 항목의 증가, 검사인력 및 고가기계의 미확보 등으로 보건소는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어려우므로 「광명시 보건소수가조례」에서 보건소의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광명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의견청취 4건 등 9건의 일반 안건도 처리했다.

문해석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석)는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고 121회 임시회를 8월 29일부터 9월 5일 까지 8일간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제122회 임시회

광명시의회는 9월 3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122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한국철도공사 이철사장이 지난 13일 보도된 중앙언론을 통해 “고속철도 광명역을 적자를 이유로 연계 수송체계 등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광명역 활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이를 “광명역사태”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하며 14일 긴급의장단회의, 성명서발표 등 그간 강력히 대응해온 활동보고와 함께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국내에는 운영사례가 없는 경전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경전철운영사례를 견학한 경전철 운영실태파악결과보고 그리고 재의요구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문해석의장은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앞서 긴급 의원간 담회를 갖고 “지난 12일 한국철도공사 이철사장의 발언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으로 개탄스러우며 이에 우리의원들이 단합하여 광명역을 지켜내기 위한 성명서발표, 플래카드게첨, 항의방문 등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여 이철사장으로부터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었고 광명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고 광명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앞으로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공사의 광명역 관련조치를 주시하며 사태에 따라 전 시민과 함께 활동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광명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석)는 지난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광명역사태에 대응한 활동과 앞으로의 방향, 경전철실태견학결과보고청취 등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제122회 임시회를 9월 30일 1일간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하여 성명서 전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제120회 정례회 회기종

- ▶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등 반대 결의문 발의안 → 원안채택
- ▶ 주요내용 :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를 눈앞이 두고 있으나 이 법 개정에 대하여,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허용하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려는 행위이며, 정당정치의 역기능이 지방에 확산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을 많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으므로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제안함.

제120회 정례회 폐회중

- ▶ 일 시 : 2005. 8. 22 (월) 10:00
- ▶ 내 용 : 제1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의 결
회기 (8일) : 2005. 8. 29 (월) ~ 9. 5 (월)

제121회 임시회 회기종

- ▶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 주요내용 : 광명시의 일부 기구 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2005. 7. 27)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분리하고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사업소로 조정하려는 것임.
- ▶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 주요내용 : 의원회기수당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18991호 2005. 8. 5.)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제121회 임시회 폐회중

- ▶ 일 시 : 2005. 9. 22 (목) 13: 30
- ▶ 내 용 : 제1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의 결
회기 (1일) : 2005. 9. 30 (금)

제122회 임시회 회기종

- ▶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 제1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부칙의 시행을 소급적용한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재의가 요구되어 부결되고 새로이 상정
- ▶ 주요내용 : 의원회기수당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18991호 2005. 8. 5.)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정하고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려는 것임.

자치행정위원회



제120회 정례회 회기종

- ▶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 주요내용 :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함
- ▶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 ▶ 주요내용 :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과 통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부칙에 있어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수정의결 함

▷ 수정내용 : “①(시행일)의 자구삽입과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 전에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의결

▶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 주요내용 : 평생학습도시지향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소(정보봉사과)의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광명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승인된 경전철사업단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관리조직과 관련하여 기승인된 기구신설(공보담당관), 문화·청소년기능의 통합운영을 위한 문화공보과의 명칭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명칭변경 : 문화복지사업소 → 평생학습지원사업소
문화공보과 → 문화청소년과
기구신설 : 공보담당관, 경전철사업단

▷ 수정내용 : 평생학습지원사업소 → 평생학습사업소

▶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재난관리조직과 관련하여 기승인된 정원과 광명경전철 건설추진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 평생학습지원기능 통합과 강화를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총정원 914명 → 931명(집행기관 895명 → 912명, 의회 19명 변동없음)

▶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행정(고충민원)분야 상담위원의 근무시간 중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10시부터 16까지의 근무시간을 10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하고 토요일 근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 광명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안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 3. 1부터 시행되어,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광명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 3. 1부터 시행되어,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광명시시장정비사업추진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 3. 1부터 시행되어,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정비 및 사업조합 설립인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광명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 3. 1부터 시행되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시장상인 또는 고객 시설물 사용료,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04회계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임.

▶ 2004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2004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임.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 보고서안 → 원안의결



위원장
박영현의원
(광명3동)



간사
박상대의원
(하안2동)



이준희의원
(광명1동)
이준기의원
(철산2동)



조미수의원
(철산3동)



최낙균의원
(하안4동)



강장섭의원
(소하1동)



최호진의원
(소하2동)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 ▶ 광명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 주요내용 :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에 인구의 변동이 예정되어 행정수요에 맞춰 통·반을 재조정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 : 429동 2,746반 → 430동 2,754반
- ▶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 주요내용 : 현재 수질검사는 수도과(가정수도전, 노후 관, 급수관정, 약수터), 재난관리과(지하수), 민방위관련부서(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수질검사 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고, 검사 항목의 증가, 검사인력 및 고가기계의 미화보 등으로 보건소는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어려우므로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에서 보건소의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복지건설위원회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 ▶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 주요내용 :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노인복지심의위원회를 폭넓게 위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2005.7.1부터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근로 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현재 평일 월2회 휴관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정기 휴관일을 주5일근무제에 적합하도록 재지정하여 실내체육관 근무 직원과 타부서 근무자와 복무여건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정기휴관일 :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 매주 월요일)

- ▶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 주요내용 : 도로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의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조례를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나 도로점용에 있어서 관련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법 적용을 배제하고 도로법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 주요내용 : 환경부훈령 제575호(2004.5.24)에 의거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개정되어 건물 증축시 전체하수량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한 규정을 하수증가량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것임.
- ▶ 광명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 원안의결
 - ▷ 주요내용 : 물 부족시대에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의 적극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혜택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부분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설치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려는 것임
- ▶ 2004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원안의결
 -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04회계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임.
- ▶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원안의결
 - ▷ 주요내용 : 2004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임.
-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 보고서안 → 원안의결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 ▶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김선식의원
(광명4동)



간사
유창시의원
(광명6동)



나상성의원
(광명2동)



임종금의원
(광명5동)



김광기의원
(광명동·학온동)



서명동의원
(철산4동)



이승호의원
(하안1동)



최남석의원
(하안3동)

▶ 주요내용 : 2005년 1월 30일자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하려는 것임.

▶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류17호선)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홍대로에서 옥길로까지 도로를 개설하도록 심의되어 간선도로망을 계획한 것임.

▶ 광명도시관리계획(녹지, 대로2류1호선, 대로3류15호선, 중로1류13, 23호선)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홍대로~옥길로간 도로와 금천교 입체교차화(철산로 남북방향 지하차도화) 및 광명소하지구~기아로간 도로를 개설하도록 심의된 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우선해제 및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 의견제시

▶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및 결정하고자 하며 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규모 집단취락 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 의견 :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시의 사업계획은 현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설명회 등을 통한 폭넓은 여론 수렴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기 바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 요구 전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여 주기 바람.

▶ 광육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 → 의견제시

▶ 주요내용 : 2000.3.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광명6동 354-24번지 일원의 광육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거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신청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려는 것임.

▶ 의견 : 시의 사업계획 중 목감천변 도로부분을 사업구역내인 어린이공원까지 같은 폭으로 확장 하여 추진하기 바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 ▶ 위원장 선임 → 이승호 의원, 하안1동
- ▶ 간사 선임 → 최낙균 의원, 하안4동
- 위원 : 박영현, 김선식, 김광기 의원
- ▶ 2004회 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원안의결
- ▶ 2004회 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의결

의정현장중계

본 시정질문은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7월 14일 목요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면관계상 질문과 답변 전문(全文)을 싣지는 못하였으나 기급적 주요부분은 언급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순)

시정질문

박영현 의원

광명 중앙도서관, 광명 문화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명 중앙도서관을 보면 제118회 임시회에서 화장실의 선반설치, 열람실 사물함 등의 도서관으로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주고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였지만 준공이 된 광명 중앙도서관을 보면 안내실의 냉. 난방 설비가 미비 되어 있고, 기관장실의 탕비실이 미설치되어 있고, 도서관의 계단 소음이 많이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여러 계층 즉 학생과 실업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된 난간의 위험성 문제가 있고 푸른 어린이 도서실의 화장실 악취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준공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도서관의 준공 후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추가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건축된 광명문화원은 장애인들이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공연장안의 관람석중 장애인석이 과연 몇 석이며 장애인들의 화장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요 문제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의 장애인석은 장애인석을 만들었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석이 안 되는 작은 공연장은 공연들을 하기 위한 따뜻한 무대이기보다는 누군가가 다치는 것을 염려해야 하는 차가운 공연장입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건축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 투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앞서 이야기한 두 곳의 건물들과 별 차이가 없는 공사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쉽게 탈수 없도록 설치된 수평문제, 비상구 문과 내부공간의 수평문제, 장애인 화장실이 남, 여 구분도 없이 건축된 것이 최근에 지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당초 1층에는 식당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지금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겨울에 난방 시설이 가동될 경우 기계소음으로 인한 소음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뒷문의 펌프장 바깥쪽은 17cm가 높아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들어와 공공시설로 건축한 복지관이 1년도 안되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지은 건물이며 200억의 예산이 들어간 건물인 복지관 건물 지하 주차장은 진입 시 자동으로 진입이 안되고 운전자가 내려서 버튼을 눌러야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과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 중 카니발조차도 주차할 수 없는 그러한 주차장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주차장입니다. 복지관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조미수 의원



음악밸리에 대한 용역을 객관적이고 우수한 용역기관에 다시 한번 재 용역을 주어 경제적 분석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께서는 음악밸리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하면서 이런 모든 내용을 수렴하여 음악밸리 사업의 재검토 또는 축소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원에서 2004년 1월 12일 자치단체의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광명시에서 6억을 출자하고 4년간 시유지를 무상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 (주)K.R.C네트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K.R.C네트는 누적 결손금과 차익금의 증가로 2003년 12월 31자로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상태로 들어 났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설립 타당성이 희박한 법인들이 제대로 겸종하지 않고 설립하므로 민간경쟁 법인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두번째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며 부실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내외부적 통제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세번째는 (주)K.R.C네트 대한 출자가 자치단체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주)K.R.C네트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광명시장은 소수 주주권행사 관련자 1명의 징계조치와 주주권행사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대표이사 해임 청구권 행사 방안강구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전 문화공보담당관 5급사무관이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주)K.R.C네트의 출자금 6억의 회수 방안으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3월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감사원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2005년 6월 24일자 광명시 민신문을 보면 (주)K.R.C네트 사무실 공간에 섹스의자 판매로 물의를 빚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시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과 시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K.R.C네트에 대한 6억의 출자금은 백재현 시장님의 정책 실패로 끝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어 몹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긴장 속에서 우리는 (주)K.R.C네트 6억의 출자 회수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음악사업과 상관없는 물품판매를 어떻게 시집행부는 설명 하실런지요? 정책실패의 귀결로 마무리된 (주)K.R.C네트에 대한 6억의 출자금 회수방안과 음반과 관련도 없는 물품판매에 대하여 광명 시민들께 정중한 사과와 이에 대한 능동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박상대 의원



음악밸리와 관련하여 광명문화원이 조사한 시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음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의 의지보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대다수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성공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광명음악밸리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함을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으며 시민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전문가와 인재를 발굴하는데 주력해 주길 바랍니다. 음악전문가이자 도시계획전문가를 모셔다가 전권을 주고 실행할 수 있는 단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관.산.학.연의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클리스터 지정을 위해 광명시민 서명과 음악 산업관계자의 서명운동을 추진하시길 제안합니다.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의 동참을 이끌고 대중음악가 등 관계인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음악밸리 사업이 국

가적인 문화컨텐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음악밸리사업에 대한 다양한 워크샵, 토론회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길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 시의회, 음악전문가그룹,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다양한 계층 및 그룹과 토론하면서 음악이 흐르는 백년도시의 구상을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음악밸리사업추진단을 만들어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직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본 사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기폭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는 1999년 3월9일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평생학습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광명시가 평생학습 원조도시로서 시민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이념을 갖고 평생학습자원봉사단 운영,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교육사의 육성 및 배치, 평생학습진흥기금 조성, 지역평생학습축제의 개최, 지역강사은행제 실시, 평생학습종합계획의 수립, 평생학습백서 발간, 평생교육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광명시 평생학습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안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2002년 계속 비 사업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8천7백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2004년 제4회 추경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총 사업비 52억 5천 7백만 원의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시의 의지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정질문

나상성 의원

KRC-NET! 정말 저희가 듣기로는 황금 알을 낳아 출출만 알고 2000년 9월, 892평의 둑지를 만들어 주고 황금알 낳는 거위를 모셔와 6억이라는 먹이까지 주면서 최초 3년, 재계약 3년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병이 너무 깊어 황금 알은 고사하고 폐 거위가 되어버렸는데 아직도 광명시는 황금 알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음악밸리 부지에 또다시 약4천 평의 새로운 둑지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황금알이라고 믿었던 KRC-NET은 정말 애물단지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도 집행부의 관리소홀 그동안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수 차례 걸쳐 저희 의회와 경기도감사, 광명시민 등 모든 분들이 주의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여 오늘날 막대한 시민의 혈세 낭비와 황금알을 섹스용품으로 광명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점에 대하여 집행부는 시민과 의회에 정중히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무계획적인 예산지원과 인건비성 예산으로 교육경비에 관한 철저한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경기도 타 시의 자료와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각급 학교 출자사업 정산 내역에 보면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보조금이 똑같이 3백만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곧 일률적으로 나눠 주기식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어떠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과 예산에 있어서 한 푼도 잔액이 없는 기가 막힌 정산능력입니다. 과연 인근 시는 교육경비를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가?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사업에는 우선순위와 제한사업을 반드시 정했습니다. 학교에

서 정산을 잘못하거나 정산을 안 할 때에는 다음 연도에 사업을 배제한다는 특이한 체계를 갖추어서 보조사업과 시장이 필요한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늦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보다 더 잘 지원해주고 계신다면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학교에서 모자, 부자, 국기초, 그리고 급식비를 몇 회 이상 미납자를 전수 조사했더니 2,457명, 2,457명 중 연중, 방학중 도시락이 필요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924명, 924명 중 본인 희망과 주변 조사로 현재 481명만 연중 여기는 미취학아동이 있어서 연중이라고 표현합니다. 방학중 조, 중,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수치심 유발 등 무계획적 급식지원으로 인하여 아직도 아침, 저녁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으며 방학중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443명 아이들이 있고 토, 일요일, 공휴일은 아예 지원이 되지 않아서 도시락을 전 어린이가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급식조례를 지금까지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정해서 체계적인 지원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규정과 법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먼저 생각을 고려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임종금 의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모든 도로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자리 매김하여 교통방송을 들어보면 거의 매일 교통체증 구간으로 소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런 지경인데 향후 광명시 경륜 둘 경기장이 개장될 경우에는 주변 도로가 거의 마비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대안으로는 광명실내 체육관 옆에서 광명7동 광명 둘 경륜장 앞으로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동구간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에서 철산4동을 내려다보면 시 개청 당시부터 흉물스럽고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를 정도의 위험한 연립 주택이 서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철산4동 467-67, 68번지 62세대 서울연립 주택 건축물로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실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충분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또한 철산4동 467-83 은하연립 92세대, 철산4동 467-71 덕산연립 49세대, 철산4동 467-94번지 26세대, 별장연립 이것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인근에 위치한 산장연립에 대해서는 건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입 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소동을 벌인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장연립에 대해서도 추진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둔 결실은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산4동 삼덕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승인구역 내 철산4동 489-70 약 130평입니다. 광명시가 도로신설을 목적으로 수용하고 자투리 대지로 남아있는데도 본 번지 대지를 소유자 원홍건설(주)의 사용승낙도 없이 재건축아파트단지 진입도로로 불법 사용하여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그 도로를 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지난번 지방 언론 보도에 이런 부분이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재건축조합에 혹시 특혜를 주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5동에서는 여러 재건축사업이 전개되고 대중교통이 상당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명동 경륜장에서 광명6동 구 1번 종점으로 해서 광명5동 현진아파트 월드아파트 광명5동사무소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광명3동 사회복지관으로 해서 구 개봉극장 앞으로 해서 4거리까지 연결하는 시내버스노선 신설을 제안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노선이 어렵다면 마을버스라도 운행도록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최남석 의원



첫째 아파트형 시범공단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는 중소기업체가 모여 집적 생산 판매하고 있는 하안3동 소재의 광명시 범공단이 건설된지 15년째에 접어듭니다. 더욱이 '99년도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C등급 및 부분적 D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장 건축물은 기계자체의 하중과 기계작동시 일반건물의 하중보다 5~6배의 하중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를 지탱하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집행부를 성토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직저수지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직저수지는 앞으로 역세권개발에 따라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되던 낚시터 사용승인이 해제되었고 유휴 저수지로 된 상태입니다. 현재도 이 유휴 저수지에서 외부인들이 낚시행위를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토.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는 약 100여명이 그리고 평일에는 약 7~80명이 낚시를 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방뇨 등에 의한 주변 환경오염, 관리자부재에 따른 익사 등 안전사고위험, 이용객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야간취객소란

과 난동 등 다양한 문제점과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직저수지가 역세권개발에 따른 수변공원으로 조성될 때까지 현재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과 사고위험에 대비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는 지방세수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광명상공회의소 육성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타 지역의 업체를 광명시로 끌어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아직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명시 범공단의 공장 공실이 현재 15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공실 발생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단내의 고용인원도 과거에 약 1,500명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약 1,000명을 으돌 정도로 인력이 감소되었고 고용창출은 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불황과 맞물려 주변의 아파트형공장 공급과잉으로 광명시 범공단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광명시의 대책과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시에서는 소하택지개발지구내에 테크노타운 조성으로 부지면적 1만1천550평 규모의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첨단업체 유치하고 입지 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는 특화단지로 육성할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계획의 큰 개선이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광명시 범공간을 소하개발구역내 테크노타운조성시 입주시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현재의 광명시 범공단을 새롭게 재개발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장

먼저 박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광명중앙도서관, 광명문화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개의 건물을 열거했습니다. 광명중앙도서관, 광명문화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원천적으로 건물을 설계할 때 상당히 많은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상당히 우리 시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물이고 설계과정부터 상당히 심의를 높이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공개로 모집해서 그 작품을 설계에 그대로 반영시켜서 설계자 의도대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설계변경의 큰 요인들을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초지일관 갈 수 있는 것은 의지일 뿐이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것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초지일관하면 그대로 밀고 가서 지으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그때그때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고치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가 판단은 지금까지는 제가 말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생각과 방향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요인이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

조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악밸리와 관련하여 KRC-NET의 출자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수립한 음악밸리 조성에 대한 기

본계획은 지난 2002년부터 음악관련 산업 대표와 음악기획·제작 전문가, 음악공연전문가, 대학교수, 인디음악인 등 많은 실무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침체된 음악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 시에 일터와 쉼터 배움터가 있는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음악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지난 5년간 축적해온 전문가들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2004년 3월 용역을 의뢰하여 관련법규 검토, 음악밸리의 필요성, 시설별 현황분석, 개발기본구상, 음악밸리의 각 시설별 유치 및 운영전략, 각 시설별 조성규모 및 소요재원, 지방채발행규모, 경제성 및 민감도분석, 분양율 산정, 기대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지난 2004년 10월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역내용이 절대적이고 꼭 용역대로 하겠다는 시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공무원 수준에서 정리해 왔던 내용을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검토시키고 그러한 내용들이 맞는가에 대한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보고서를 만들어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KRC-NET에 대한 6억원 출자금 회수방안과 음반과 관련도 없는 물건판매에 대해 작년 연말 12월 정례회에서도 이미 우리 시민들에게 의원님들께 시민단체에 KRC-NET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또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KRC-NET에 출자부분과 이러한 일들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나온 여타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 *

박상대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악밸리추진위원회를 저희들도 함께 발족하도록 해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광명시민의 서명과 음악산업 관계자의 서명을 병행 추진해서 음악밸리 클러스터 지정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과연 시민의 서명까지 받아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개개인까지 다 받아야 할 것인지 단체만 받아서 갈 것인지 어쨌든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좀더 시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및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관련 법 제정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만 드리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및 교육경비보조가 1년에 보통 27억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체계화시키고 객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관련된 일 평생학습 및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관련 법에 근거해서 우리시에 알맞은 조례를 금년 하반기 중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확보가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예산 확보해야 하는데 토지매입 부분만 해도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사정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제방만이라도 꼭 사들일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세워서 부분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 * *

나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RC넷과 음악밸리조성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지혜를 잘 모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외자유치와 관련되어 추진했던 사항도 당초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시가 추진했지만 임창열지사님 시절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분들은 토지개발과 관련된 것까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토지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음악밸리라든가 역세권개발의 큰 의미를 갖고 계시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만 해야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3백만 원씩 지원 나가는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의 유치원을 지원하면서 빔 프로젝트를 하나 사주는데 부족하여 우리가 일부를 보조하고 일부는 자기 재정부담해서 교육기자재를 사주는데 기자재 값이 6백여만 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시가 3백만 원씩 일괄해서 주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가 자 부담해서 광명시의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기자재를 사줬던 것으로 2개년에 걸쳐서 사줘서 지금은 효율적으로 편성한 사항이라 믿습니다.

* * *

임종금의원님께서 광명사거리 교통체증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예상하기에는 경륜장이 개장되면 차가 얼마 정도 올것이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3,000대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3,000대가 오는 데는 시시각각으로 나누어서 오는데 끝나고 빠져나갈 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경륜장 주변의 도로를 2.2km 정도 뚫으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까지는 못하지만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공사를 진행시키고 동쪽 가리대를 포함해서 시흥동 시흥대로에서 광명병원을 지나서 광명대교, 과림동 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완성되는 시점이 2007년 말 정도 됩니다. 그 도로가 되면 경륜장에서 남쪽으로 나가거나 동쪽으로 나가거나 서쪽으로 나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광명사거리 통해서 북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부천을 거쳐서 오류동으로 빠지는 17번 도로가 있습니다. 광역도로인데 이것이 한 8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시흥까지 구간은 마무리가 되었고 부천이 거기를 뚫고 있습니다. 서울 구간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륜장이 먼저 개장이 되거나 그 도로가 완성되기 전에는 약 2년 정도 시차가 나는데 그 동안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륜장 주변으로 도로를 확대해가고 넓혀 가는 일들을 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확대추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광명사거리의 교통체제는 당분간 17번 도로가 완성이 되고 천왕동 개발이 끝나고 완공될 시점까지는 많은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광명마을 앞에서 5단지 쪽으로 도로 도시계획 선은 그어져있죠. 그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파보레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시청 시민

회관 앞에서 철산4동을 거쳐 가림 터널로 빠지는 도로를 연결하는 그것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서 철산4동 지역의 꼭대기를 개발할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되는 지역이면 그런 도로를 뚫을 기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되지는 않지만 철산4동의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된 일이 마무리되어야 그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기철이 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철산4동에 소재한 재난위험 D급인 서울연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급 건물까지는 본인의 책임 하에 고치거나 만들거나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진입로를 헐어 가지고 재건축 단계로 들어갔습니다만 산장연립은 E급 건물입니다. D급 건물을 우리시가 예산을 세우거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보완을 하기는 했습니다. 안전진단도 시켜보고 다 했고 거기에 계측기를 달아서 계속적으로 추적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빨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절차를 재정비계획에 최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관리뿐이지 대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광명5동 재건축사업지역과 장애인복지관 주변의 교통대책추진에 대해서 광명5동의 현진에 버릴과 월드건설이 준공되어서 가을에 입주되는데 그렇다고 큰 세대수가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배치하면 좋겠지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재정경제국장

* * *

최남석 의원님께서 광명시범공단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 현 광명시범공단을 소하테크노타운으로 이주시기는 방안과 함께 시범공단을 재개발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 공예품개발보조금지원, 광명상공회의소육성지원 등 다각도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광명시범공단 건물의 노후화와 인근 구로디지털단지의 재건축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공실율이 증가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원인은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거나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또는 공장임대료가 저렴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이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기업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있는 기업을 못 나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범공단내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신청시 가점을 부여해서 자금난을 덜어주고 그밖에 입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서 광명시범공단과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며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도 발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테크노타운은 부지면적 11,550평에 아파트형공장, R&D 및 지원센터, 물류시설, 후생복지시설, 부대 편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건립하여 인근지역의 아파트형 공장과 비교하여 경쟁력있고 차별화 된 맞춤형 테크노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할 소하테크노타운은 광명시범공단 입주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기업체들에게 우선 입주방안을 부여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수립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 광명시범공단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관련법 등 모든 사안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건설교통국장

* * *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형 공장은 사실 시설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아파트형 공장 건물 안전에 소홀히 대처 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민간시설물은 관리주체인 소유자. 관리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도 소유자. 관리자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비용 등 예산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74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지침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로써 그동안 안전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앞

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대상이 아니라도 시설물의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점검 계획에 포함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안전점검에 더욱 노력을 기울 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직 저수지는 역세권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용지보상 등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수변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많은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비보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택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변청소 및 낚시하는 사람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예찰과 지도단속을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단신.....



광명역사태에 대한 발빠른 대응

광명시의회(의장 문해석)가 최근 불거진 광명역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응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한국철도공사 이철사장이 지난 13일 보도된 중앙언론을 통해 “고속철도 광명역을 적자를 이유로 연계 수송체계 등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광명역 활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이를 “광명역사태”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하며 긴급의장단 회의개최, 성명서 발표, 항의방문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의원들이 해외출장 후 14일 오전 7시30분경에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11시에 긴급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광명역 사태에 대해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어 시민들의 경각심과 저지운동에 동참을 유도했으며 의원들도 15일 오후2시에 한국철도공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이철사장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었고 광명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고 광명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5시 광명시 프리핑룸에서 “고속철도 광명역을 당초 계획대로 출발역(시발역)으로 조속히 환원하여 국책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도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라.”

“영등포역 정차검토를 즉각 백지화 하라. 이는 광명역은 물론 서울역, 용산역의 이용객 감소와 함께 안양, 안산, 시흥시 등 수도권의 이용객 증가에도 찬물을 끼얹고 광명역 세권 개발사업, 제2공항 철도사업, 신안산선 사업에도 커다란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라.”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셔틀전철의 내년 초 시행, 대구역과 직통으로 운행되는 셔틀열차 운행, 연계교통망의 조속착공 등 광명역 정상화 계획을 건설교통부, 철도공사, 경기도, 광명시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실천하도록 추진하라.”는 등 3개항의 요구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건교부, 한국철도공사,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고속철도 영등포역정차 검토 등의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광명역을 출발역으로 조속히 환원하라

지난 9월 13일 TV를 비롯한 중앙언론은 “지난 12일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고속철도 광명역이 적자라는 이유로 연계 수송체계 등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광명역 활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고속철도 광명역의 현 실태와 광명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 발언으로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광명역의 연간 운영 적자가 420억에 달한다고 하나 이는 당초 광명역을 출발역으로 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출발역을 바꾸어 개통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고, 전철연계 등의 연계교통망은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시행할 사업이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중앙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며, 운영한지 불과 1년여의 적자는 광명역 활성화 대책 수립 등 적자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마땅한데도 1년간의 초기 적자를 이유로 4,068억원이나 투입된 광명역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졸속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와 함께 고속철의 영등포역 정차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이는 고속철이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영등포역에 정차하는 것으로 당초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취지를 역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커다란 정책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13일 건설교통부 홍순만 철도기획관은 모 언론에 “고속철도역사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인가권은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라 건교부가 가지고 있다.” “광명역은 하루 이용자가 개설초기에는 4천명 수준이었다가 최근에는 1만명으로 크게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어서 광명역을 영등포로 옮기거나 축소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앞서 중앙정부는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지하철 1호선 관악역과 광명역 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셔틀전철의 내년 초 시행, 대구역과 직통으로 운행되는 셔틀열차 운행, 연계교통망의 조속착공 등 139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살펴볼 때 고속철도 광명역의 축소 또는 폐지는 중앙정부차원의 검증을 거친 공식적인 의견이기 보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철 사장의 사견이라고 여겨지며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를 비롯한 광명시민은 국가시책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한국 철도공사에 대해 앞으로 더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고속철도 광명역을 당초 계획대로 출발역(시발역)으로 조속히 환원하여 국책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도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라

둘째 영등포역 정차검토를 즉각 백지화 하라. 이는 광명역은 물론 서울역, 용산역의 이용객 감소와 함께 안양, 안산, 시흥시 등 수도권의 이용객 증가에도 찬물을 끼얹고 광명역세권 개발 사업, 제2공항 철도사업, 신안산선 사업에도 커다란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라.

셋째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셔틀전철의 내년 초 시행, 대구역과 직통으로 운행되는 셔틀 열차 운행, 연계교통망의 조속착공 등 광명역 정상화 계획을 건설교통부, 철도공사, 경기도, 광명시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실천하도록 추진하라.

2005년 9월 14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중추절 시설위문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을 맞아 광명시의회(의장 문해석)는 지난 9월 14일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돋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광명시의회는 치매 등 노인 중증질환자 수용시설인 노인요양센터, 부랑인 수용시설인 김기문의집, 장애인·아동 수용시설인 예광공동체 및 사랑의집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준비해간 과일을 전달하고 수용자들과 관계자들을 위로·격려했다.

문해석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비록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항상 밝고 맑은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면 아픔도 훨씬 덜하고 마음이 가벼울 것”이라고 말하고 관계자들에게 “수용자를 돌보는데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가족 내 몸과 같이 잘 돌봐줄 것”을 당부했다.



하반기 의원합동세미나

광명시의회(의장 문해석)는 지난 9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 교원연수원에서 중부권 9개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합동세미나는 중부권 9개시의회 상호간 정보교환 및 현안사항 협의로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해당시의회 의원 114명과 사무직원 52명 등 166명이 참석했다.

28일에는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강의코칭아카데미 김창옥 지도교수로부터 마음을 여는 퍼포먼스를 주제로 특강과 함께 9개시의회간의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29일에는 건강강좌, 상호정보교환 등의 시간을 가진 후 14:30분에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광명역사태항의방문

- 일 시 : 9월 15일 14:00
- 장 소 : 한국철도공사대전청사(의원 14, 공무원 8, 기자 5)
- 내 용 : 한국철도공사 이철사장의 광명역 축소내지 폐지발언 관련 항의방문



한국철도공사 대전청사정문



한국철도공사 대전청사현관



도시철도사업단 이천세단장 등 관계자에게
강력한 항의



하반기의원합동세미나

- 기 간 : 9월 28일 수 ~ 9월 29 목 (1박2일)
- 장 소 : 경기도가평 교원연수원
- 내 용 : 경기중부권 9개시 의회의 상호간 정보교환 및 현안사항 협의로 의정발전도모



경전철실태견학

- 기 간 : 9월 8일 목 ~ 9월 13 화 (5박6일)
- 장 소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원10, 공무원4)
- 내 용 : 국내에는 운영사례가 없는 경전철에 대한 해외 사례견학으로 실태파악



방 · 청 · 안 · 내

시민들께서 원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오셔서 임시회, 정례회의 시정 질문이나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방청하십시오.

방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미리미리 의회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리 정성껏 들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사무국 <☎ 2616-6948, 2625-2983~5>

의 · 회 · 안 · 내

- 의장실 2680-2500
- 부속실 2680-2501
- 부의장실 2680-2503
- 부속실 2680-2504
FAX 2680-2638
- 의회운영위원회 2625-2984
- 자치행정위원회 2625-2983
- 복지건설위원회 2625-2985
- 의회사무국장 2680-2560
- 의회운영전문위원 2680-2510
- 자치행정전문위원 2680-2511
- 복지건설전문위원 2680-2512
- 의정담당 2680-2522
- 의사담당 2680-2521
FAX 2680-2637

<http://www.gmc21c.com>

